



● 이종문화 가정목회 ●

아픔과 외로움을 서로 보듬어 가면서

송계영 목사

이종문화 교회를 사역한 지 올해로 7년째 접어들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가정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이종문화 가정이다. 전형적인 이종문화가정교회를 섬겨오면서, 사역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성하다’ 혹은 ‘어설피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의 한인교회들도 한인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종문화교회는 더욱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이종문화교회는 군부대 주변에 있는데, 군부대가 대도시 다운타운에 존재할 리가 없기에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우리교회가 위치해 있는 캔사스 정선시지역은 인구 2만 명의 소도시로 미 중부지역의 큰 도시인 캔사스시티와 2시간이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주변은 군부대를 제외하면 밀밭과 초원 그리고 해바라기 밭에 둘러싸여 있고 가장 가까운 주변의 다른 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이 넘기에 문화적 소외감은 더욱 크다. 그래서 이곳 교민들은 이곳을 ‘육지의 섬’이라고 부른다. 주변의 대학교나 전문 직업인이 없기 때문에 이종문화가정교회는 사역에 있어서 전문사역자가 없다. 전도사나 성가대 지휘자 혹은 교회학교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를 세우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종문화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 큰 희망과 비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될 다문화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는 이종문화를 단순히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 태생부터 두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종문화 가정

들이라고 믿는다. 그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는 두 가지 중심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그 하나는 아픔과 외로움을 서로 보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미래를 위해 쓰일 인재를 개발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하고 어설피도 우리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인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래도 작은 소도시에서 이종문화 가정 100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전문 사역자의 도움 없이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성도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그저 가슴의 열정만 가지고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도시의 전문가가 본다면 영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가 영성하게 걸어도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곧 일어서 걷고 뛰게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부모의 심정은 영성해도 계속 걷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송계영(Kye Young Song)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Th. B, Th. M)와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M. Div.)를 졸업하고, 현재 Kansas East Conference 정회원으로 정선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